

『주거생활을 통해 본 월남의 인상』

배 동 근
주월 십자성사령부 정보참모처

◇…6月22日 六月號 編輯에 숨가쁜 午後 뜻밖에도 異國萬里 熱夏의 월남 땅에 가있는 本誌 愛讀者에게서 이 原稿가 날아왔다. 그리고 越南의 사진까지 2枚가 들어 있지 않은가.

이토록 本誌를 아껴 글을 써 보내어준 筆者의 고마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會員 여러분과 本誌 愛讀者 諸位께 여가의 一讀으로서 권한다. 편집자—◇…

후진국일수록 더욱 그러하겠지만 이나라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도 없을 것 같다. 긴 세월이 전쟁의 연속이었으니 그럴 수 밖에도 없겠지만 수세기 동안 불란서의 식민지였기에 일부 부유층은 불란서 유학을 거친자도 많아 서구적 멋들이 國際水準이지만 하급층은 우리나라 서민층보다 더 비참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게 뚜렷이 表面化되었다.

내가 파월 이전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대해 아는 바라곤 야자수 바나나의 고장인 열대의 무더운 나라,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폐허된 형편없는 전장이란 것밖엔 아무것도 예비지식이 없었기에 파월을 지원하긴 했어도 막상 釜山港을 출항할 땐 어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방정 맞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심한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월남에 도착한 첫인상은 상상외로 만만하였다. 맨처음 발을 디딘 곳이 작전지 아닌 월남 5대 도시중의 하나인 '나트랑시'였다. 항구 같지 않은 멋있는 롱 비취의 백사장에 상륙을 한 것이다. 그때 많은 인파가 비키니 차림으로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대부분이 美軍들 같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우리의 隊列을 눈여겨 쳐다 봐 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無表情들이어서 어리둥절 했었다. 우리들의 不安하고 긴장된 表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상들이어서 얼마나 이상해 했는지 모른다.

말로만 듣던 南國의 情熱의인 야자수 숲이 온 市街地를 뒤덮어 가뜩이나 낮은 건물들이 안 보일 정도이고 가느다란 몸매의 날씬한 '콩까이', '돌이', '아오자이', '자락'을 깃발 처럼 펴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 멋 있었고 야자수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는 꼬마들이랑 대바구니에 탐스런 바나나, 야자수, 파인애플 등을 메고 다니는 行商 女人들의 완만한 동작이 너무나 평화스럽게만 보였기에 戰爭의 이미지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긴장했던 가슴들은 다소나마 안심케 해주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론 열대이니까 건물들이 시원하게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아 이상할 정도였다. 개구부의 면적이 넓기는 커녕 우리나라보다 더 좁은 것 같고 주택들은 이마가 달을 정도로 낮고 외관은 갑갑하게 막혀 있는 게 특색이다. 여인들의 옷을 봐도 짐작이 간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남방이나 짧은 옷을 입은 사람은 더물고 월남 특유의 아오자이라는 옷 자체도 발목까지 덮이는 바지위에 걸치게 돼 있고 될 수 있으면 피부의 노출 부분을 적게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작업복은 검정색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더위좁은 문제시 하지 않는 모양이다. 오히려 우기가 되면 오한을 느낄 정도로 기온이 내려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제일 두려워 한다는 말을 들었다.

생김새도 한국인 보다 훨씬 적은 깡마른 체구에 혹서에도 땀 한방울 흘리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간다. 언어의 불통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알 수 없지만 몇번인가 월남어를 좀 아는 친구와 같이 대민사업나가는 일행에 억지로 배를 싸가며 동행해서 여러계층의 자매 부락의 가정들을 호별 방문 해본 적이 있다. 상류층은 불란서풍의 양식이 대부분인데 어디를 가나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야자수 숲이 우거져 별장 같은 운치를 보여 준다. 벽체는 외벽 뿐이고 몇 있는 가구나 장식용 책꽂이 들로서 칸을 막아 각실을 구분하고 출입문은 커튼으로 되어 있고 집 전체가 방 하나 같은 느낌인데 각실의 독립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의 사생활이 얼마나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화려한 가구와 침대가 생활 정도를 추측할 수 있게 하였고 한편 서민층의 가정들은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참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예외인 것은 거리의 행인들이 대부분이 여자들이고 남자라고는 보기에도 징그런 노인네들 뿐이었으며 표정들이 우울해 보였고 한산한 분위기가 戰場의 一面을 암시해 주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가 도착한 것이 70, 7, 23일이었으니까 하필 제일 무더운 전기철이어서 갑자기 돌변한 氣候에 대한 苦痛이 말이 아니었다. 심한 현기증으로 몇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 했었고 몇일 동안 食事も 못하고 이대로 죽고 말 것 같은 고비도 있었는데 벌써 1년이란 세월 덕분에 이제 월남인처럼 돼 버리고 말았다. 어느 나라 할것 없이 建築物의 樣式은 氣候와 生活 習性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예외일수는 없는 모양이다. 建物이나 가옥들의 양식만 봐도 그 나라의 문화 생활 수준이나 국민성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다. 월남의 기후는 두가지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와 건기로 크게 나누어 진다. 안남 산맥을 중심으로 한 남부 일대는 인도양 계절풍에 의해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철이고 중부와 북부 지역은 통킹만 계절풍에 의해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가 우기이며 나머지 기간은 건기가 된다. 연 평균 기온은 34°C로서 건기에는 40°C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건조하며 우기에는 우리나라 장마철 같이 매일 비가 내리며 굉장히 시원하고 초목이 잘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판자촌보다 더 지저분하고 겨우 판자나 깡통들로서 외벽만 형성해 놓고 내부 칸막이는 허름한 커튼으로 구분 했을 뿐 장식품이란 것은 볼 수 없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번두리로 나가면 우리나라 시골 비슷한 모양의 야자수 가지로 엮어 만든 초가들이 중기 중기 붙어 있어 오랜 전



화에 시달려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음이 황량하고
살풍경한 분위기를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런데 집집마다 조상을 모시는 제단이 화려하게 마련돼 있는게 또한 공통적인 특색이었다. 누구나 다 월남을 돌아 본 사람은 첫눈에 도처에 세워진 호화스런 사원과 석조로 꾸며진 묘지를 볼 수 있다. 80%가 불교도로서 월남의 정치를 좌우할 만큼 큰힘을 가지고 있고 또 조상이 사망하면 가산의 대부분을 들여 묘지나 제단을 장식하는 것이 자손의 의무이고 효도의 길이라는 풍습이 있어 숭불과 조상 숭배주의가 뿌리 깊은 민족성이라고 한다. 어디를 가나 빈틈 없이 우거진 정글이고 험벗은 황토색은 찾아 볼 수가 없이 온천지가 일년 내내 푸르기만 하다. 해묵은 넓은 평야가 아깝기만 하고 전쟁만 없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일까 하는 아쉬운맘 한이 없고 어서 빨리 이땅에도 전쟁 없는 평화가 깃들기를 한없이 염원해 보는 바이다.